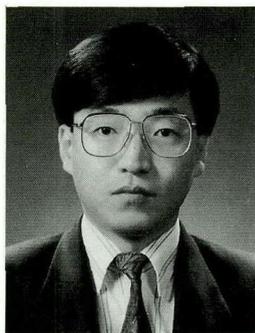


보건복지정보화 추진현황 및 계획



李榮浩

보건복지부 전산통계담당관

보건복지분야는 국민이 매일 겪게 되는 기본적인 삶과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대상범위가 매우 넓고 여러 가지 제도가 연계되어 있어 업무가 복잡 다양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그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어 정보화의 2대 목표 즉, 정보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과 업무의 효율화 등 정보화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지난 1980년대부터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일련의 전산화가 산발적이거나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보화 추세를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1992년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복지망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리고 그간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등 국가정보화 기본정책이 새롭게 정비됨에 따라 보

건복지분야의 정보화도 이에 발맞추어 정보화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현실적인 모습으로 재단장하여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1. 보건복지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의 수립

정부는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에서 보건의료정보서비스의 획기적 향상을 통한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정보화 1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동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0년까지 장기 시행계획으로 보건복지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이번 시행계획에는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뿐만 아니라 그간 정보화 대상분야로 고려되지 않았던 사회복지분야의 정보화를 포함하고, 행정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오던 국민복지망사업의 단위사업까지 총 망라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대·수립하였다.

보건복지정보화는 사회복지, 보건산업, 보건의료, 사회보험, 보건복지정보화 기반구축 등 크게 5개 분야로 분류되고, 총 26개의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이들 사업에 대해 각 분야별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복지분야 정보화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낮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원봉사 및 장애인 취업알선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개선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장애인 재활, 자원봉사, 아동보육 및 노인취업 등의 정보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그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자원 관리 및 사회취약계층 관리

보건복지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는
보건의료분야뿐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의
정보화를 포함하고,
국민복지망사업의
단위사업까지 총
망라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대·수립하였다.

등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재활 및 자원봉사 정보서비스사업은 지난 1996년부터 장애인재활협회 및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각 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통신망을 통하여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보육정보서비스사업은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 중앙 및 지방보육센터를 연계, 통신망을 통하여 아동보육정보 제공을 목표로 현재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시도하고 있는 노인취업정보서비스사업도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으나 노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태세 미비 등으로 그 취지에 비하여 운영이 활발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향후 현재 실시중인 각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회복지자원관리를 체계화하고, 이러한 정보화 노력을 통해 2000년까지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개선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 보건산업분야 정보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은 기술부족 및 산업의 영세성으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보건의료기술의 낙후성은 보건산업관련 정보의 부족으로부터 기인하는 면이 강하다. 따라서 보건산업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가공 및 유통체계를 구축,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식품관리정보화, 1997년부터 의약품 및 의료용구관리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의약품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중인 식품위생 관리, 수입식품 검사업무 등 식품관리 정보화사업은 1997년까지 수입식품검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연차적으로 그 대상업무를 확대하여 2000년에는 국내외 식품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의약품의 인·허가관리, 안전성·유효성관리, 유통관리 등의 의약품관리 정보화사업은 1997년 현재 제1단계로 의약품 인·허가관리업무를 개발중이고, 단계별로 추진하여 1999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구의 허가관리, 시험검사관리, 안전성·유효성관리, 유통관리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용구관리 정보화사업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사업들의 추진과 더불어 1999년부터는 의약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물류비용의 감소 등 유통체계

의 선진화를 도모하여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는 1970년대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의료보험 청구를 위한 병원전산화에서 출발하여, 현재 일부 종합병원에서 처방전달시스템 및 의료화상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각 병원의 독자적인 추진으로 병원간 정보호환이 되지 않아 필요한 의료기관간 의료정보전달체계 등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전달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여 민간의 의료정보화를 지원하고, 보건의료정보화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정보화사업 및 보건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보건의료 정보화사업은 보건기관의 행정·진료·보건업무지원을 위한 표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1996년부터 경기도내 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2000년까지 전국 보건소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개발중인 전염병감시시스템 및 1998년부터 추진할 정신보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적 균등화를 조기에 실현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각 보건의료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시설·인력·장비·이용·재원에 대한 보건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000년에는 대국민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995년부터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던 혈액유통, 장기이식, 외래진료 예약, 원격진료, 응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여 민간의 의료정보화 지원과 지역보건의료 정보화사업, 보건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급의료 및 원격치매진료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시스템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혈액유통, 정보관리, 장기이식, 외래진료 예약 및 감염병감시 정보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의 통합 화면 제공을 위한 통합보건의료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들은 1997년말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각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을 거쳐 1998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 사회보험분야 정보화

의료보험정보화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와 동시에 시작하여 오랜 운영경험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간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수작업 의존도가 높았던 의료보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96년부터 의료보험종합전산망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까지 그간 노후화된 전국 조합의 전산환경을 개선하고, 의료보험종합전산망을 통하여 조합간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한편, 자격변동 즉시 의료보험증을 발급하는 등 대민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1996년 전자문서교환방법(EDI)을 이용한 전자청구 등 진료비심사 청구업무 정보화를 4,000여 개 병·의원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동 시범사업 결과 처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대폭 감축됨에 따라 향후 의료보험 EDI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매년 약 3억 건의 청구심사 자동화로 약 300억원의 비용을 절감시킬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정보화는 1986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시작되어 5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촌 지역주민에 대한 자격관리, 징수관리 및 급여관리 업무가 정보처리되고 있으며, 현재 1998년 전국민연금 실시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의 확대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전산망과 연계하여 거주이전신고를 간소화하고, 금융전산망과 연계하여 보험료의 자동수납 및 연금급여를 즉시 지급하는 등 대민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종합전산망 및 국민연금정보시스템을 1998년 실시예정인 전자주민카드와의 연계 등 지속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마. 보건복지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보건복지정보 표준화

보건복지정보 표준화는 정보화 추진 주체 및 대상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로 관련단체, 관계기관 등 정보이용기관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

으로 개발토록 하되, 정부에서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장치의 강구, 각 분야의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도 및 정보연계 등을 고려한 표준화 사업에 주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정보 표준화 전담기관인 보건복지전산망표준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운영중 또는 개발예정인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표준에 대하여 해외 선진사례 등을 분석하고, 표준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등 보건복지정보 표준에 대한 연구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현재 의료보험 전자문서 및 수입식품 코드의 표준화를 추진중이며, 향후 의약품전자문서, 의료 영상저장기술, 의무기록 및 사회복지분야의 표준화 등 보건복지정보화 추진의 근간이 되는 표준화 사업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속·추진하여 정보공동활용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바.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997년 8월부터 보건복지행정업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는 업무개선 효과가 커 국민들이 정보화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한국전산원과 함께 수립하고 있다.

정보화전략계획은 정보화사업 추진 이전에 정책결정, 집행 및 평가 등 업무절차 및 흐름을 정보시스템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여 제도 및 업무절차 개선을 포함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번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되면, 내무부 및 정보통신부와 협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시범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2~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의 강구, 각 분야의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도 및 정보연계 등을 고려한 표준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행정업무는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 많은 기관이 연계되어 추진됨에 따라, 그 행정업무 처리대상 및 절차가 매우 복잡 다양하므로 정보화 필요성은 매우 크나 동시에 전체를 정보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예상된다. 따라서 보건복지행정 정보화는 기존 정보화의 정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1997년 보건복지부내에 전자결재 등의 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통계 및 법령 등의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보건복지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처리절차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은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맺는 말

보건복지부는 정보화의 최대 응용분야의 하나이고, 정보화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선진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